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역동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서 영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역동

지도 교수 이재림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서영

김서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초 록

최근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는 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나 조손가족의 손자녀인 청년 주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다. 국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가 소수 있으나, 청년시기라는 맥락과 가족돌봄의 맞물림, 그리고 청년을 둘러싼 가족의 역동까지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생애과정관점과 성인진입기 관점에서 봤을 때 청년시기 가족돌봄은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비규범적 사건이며, 청년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시기 가족돌봄이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어 가족돌봄청년의 청년시기 특성을 중심으로 가족돌봄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과 돌봄을 받는 가족구성원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나 가족구조와 같은 전체 가족의 맥락도 청년의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의 청년시기 맥락과 함께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역동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의 부모 및 조부모 돌봄 경험을 청년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가족역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신체적 돌봄 또는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돌봄을 6개월 이상 일상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하였던 만 19-34세 미혼남녀 7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성찰적 주제분석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잉여인력 청년에게 떠넘겨진 가족돌봄', '가족 속 숨겨진 주돌봄제공자',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조부모 돌봄, 뿌리치지 못하는 부모 돌봄', '가족돌봄으로 청년시기를 잃어버림', '청년이라서 차라리 나은 가족돌봄'의 다섯 가지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 강요 혹은 가족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돌보게 되었다. 가족 중 아버지나 친척의 관점에서 청년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시기와 맞물려 집에 머무르며 생산노동을 하지 않는 인력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청년은 가족 내 돌봄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인물로 여겨져 성인전이기의 주요 생애사건에서 방해나 변화를 경험하거나 성인진입기 특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가족돌봄을 떠맡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주돌봄제공자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가족 내 주돌봄제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장시간 동안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숨겨진' 주돌봄제공자였다. 특히 3세대 가족에서 부모세대가 조부모 돌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가족돌봄청년들의 부모세대는 청년에게 조부모 돌봄을 떠넘기거나, 청년과 공동으로 돌보거나, 자녀인 청년으로부터 역으로 돌봄을 받기도 하였다.

전체 가족의 역동 또한 청년시기 가족돌봄 경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한국가족의 맥락에서, 청년시기에 반대로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부모 돌봄에 비해 비교적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인식하였고, 과거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돌봄을 갚는 활동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조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은 피할 수 없었다. 가족의 지지나 불화와 같이 돌봄수혜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또한 돌봄을 건디게 하거나 돌봄에서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등,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역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청년시기를 잃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어차피 잃을 것이 없는 시기라 가족을 돌보기에 차라리 나은 시기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가족돌봄은 청년시기에 경험하는 생애사건 및 성인진입기 특성과 긴밀하게 맞물리는 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전이기의 대표적인 생애사건인 졸업,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영역에서 방해나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돌봄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소진으로 자기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정체성을 탐색하는 가능성의 시기인

성인진입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더 이른 시기와 더 늦은 시기와 비교를 통해 자신이 처한 가족돌봄 상황을 차라리 나은 것으로 평가하나, 막막한 청년시기에 돌봄을 해서 오히려 잃을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해 청년시기를 희생했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족돌봄 경험을 미래를 위한 발판이자 가족이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기회로 여겼다.

본 연구는 청년시기와 가족역동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청년시기라는 특수성과 가족의 상황과 역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청년의 돌봄 경험 속에서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년시기 가족돌봄 경험이 청년의 삶에 방해와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요어: 가족돌봄, 영케어러, 성인전이기, 성인진입기, 생애과정관점, 가족체계, 세대관계

학 번: 2021-28743

목 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5
제 1 절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및 현황	5
제 2 절 청년시기 가족돌봄의 특수성	8
제 3 절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역동	10
제 3 장 연구방법	13
제 1 절 연구참여자	13
1. 연구참여자 선정과 모집	13
2. 연구참여자 특성	14
제 2 절 자료수집	17
제 3 절 자료분석	18
제 4 장 연구결과	22
제 1 절 잉여인력 청년에게 떠넘겨진 가족돌봄	22
제 2 절 가족 속 숨겨진 주돌봄제공자	27
제 3 절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조부모 돌봄, 뿌리치지 못하는 부모 돌봄	31
제 4 절 가족돌봄으로 청년시기를 잃어버림	37
제 5 절 청년이라서 차라리 나은 가족돌봄	42
제 5 장 결론 및 논의	47
참고문헌	53
Abstract	60

표 목차

<표 3-1> 연구참여자의 특성	16
-------------------------	----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하는 1차적인 돌봄은 중년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어 왔다(Brody, 1990). 이에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중년기 이상의 성인 돌봄제공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아동, 청소년 및 청년 또한 가족돌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최영준 외, 2022;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9).

영케어러(young carer)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을 의미한다(Aldridge & Becker, 1993). 이 개념은 1990년대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시기 가족돌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한 가족돌봄을 청년시기에도 유지하거나, 부모 및 조부모의 노화로 인해 청년시기에 돌봄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 즉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독자적 연구의 필요성이 Levine et al.(2005)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서구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청년시기만의 가족돌봄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evrier et al., 2022; Day, 2015).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홀로 돌보던 뇌졸중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숨지게 한 청년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돌봄수혜자가 아닌 돌봄제공자로서의 청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수립 방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아픈 가족원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공식 명명하였으며, 만 13-34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을 탐색한 국내 문헌(조기현, 2022; 최영준 외, 2022; 최윤진, 김고은, 2022)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시작단계이다.

중년기 이상 성인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생산노동에 기여하지 않는 잉여인력으로 여겨진다. 또한, 미혼인 경우 돌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청년시기 잉여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돌봄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은 스스로를 돌봄제공자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돌봄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등 '숨어 있는' 가족돌봄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Smyth et al., 2011). 교육과 진로 등에서의 전이와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것은 청년들에게 중첩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Sprung & Laing, 2017)에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

생애과정관점에서 청년시기는 성인전이기에 해당한다. 교육종료,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영역의 생애사건을 경험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라는 의미이다. 다양한 성인기 이행과제에 직면한 청년시기에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때에 맞지 않은(off-time) 비규범적인 사건(Greene et al., 2017)으로 여겨진다.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을 살펴본 최근의 국내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학업중단, 진로선택 제한, 이직 등을 경험하였으며(최영준 외, 2022), 직업과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을 느꼈다(최윤진, 김고은, 2022). 가족돌봄은 생계와 진로 전반에 걸쳐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중첩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22; Pope et al., 2018). 따라서 성인전이기의 발달적 특성이 가족돌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가족돌봄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시기를 다른 시기와 구분되는 새로운 발달단계로 보는 성인진입기 관점(Arnett, 2000)도 청년시기의 가족돌봄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강조하기보다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에 낀 시기로서 성인진입기의 고유한 심리적 상태를 강조한다. 성인진입기의 대표적인 특성은 자기중심성,

가능성, 정체성 탐색, 불안정, 중간에 낀 느낌이다(Arnett, 2000). 이러한 관점에서도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으로 인해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고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청년시기 특성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취업난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포기한 'N포세대' 청년에게 가족돌봄은 오히려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성숙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Jones, 2018). 따라서 청년시기 가족돌봄 경험은 반드시 청년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예외 사건인 '문제'로 여길 수 없으며(조기현, 2022), 가족돌봄으로 인해 청년시기만의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달단계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가족돌봄청년은 주로 부모와 조부모를 돌본다. 이들은 한부모가족에서 투병 중인 한부모를 돌보는 청년자녀이거나 조손가족에서 연로한 조부모를 돌보는 청년손자녀인 경우 등 주돌봄제공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조부모나 부모를 돌보는 보조돌봄제공자일 수도 있다(Canell et al., 2020; Lewis, 2018). 우리나라의 지자체별 가족돌봄청년 지원이나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서 주된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세대에 가려져 돌봄제공자로 주목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보조돌봄제공자 청년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역동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족체계이론에서 가족은 하나의 전체로, 한 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체계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 가족구성원의 질병이나 장애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누가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도 가족체계 안에서 결정되며, 가족의 지지나 불화와 같은 가족관계는 돌봄 경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가족관계 내에서 갈취 및 착취를 당하는 반면(조기현, 2022; 최영준 외, 2022), 가족의 지지를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한다(최윤진, 김고은, 2022). 또한, 가족 내 세대갈등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Blanton, 2013).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 모두 가족돌봄청년 개인의 돌봄활동과 돌봄과정, 돌봄 스트레스(D'Amen et al., 2021; van der Werf et al., 2022) 등이나 돌봄제공자인 청년과 돌봄수혜자의 관계(Chevrier et al., 2022)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 간 관계뿐 아니라 청년의 돌봄 상황에서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한국의 가족돌봄청년이 어떠한 체험(lived experiences)을 하는지 질적연구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의 청년시기 특성과 가족체계 역동이 가족돌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관통하는 연구문제는 '가족역동을 중심으로 본 청년시기 부모 및 조부모 돌봄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신체적 돌봄 또는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돌봄을 6개월 이상 일상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하였던 만 19-34세 미혼남녀를 참여자로 질적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윗세대 돌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형제자매를 돌보는 청년이나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청년은 제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을 발달적,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및 현황

누가 돌봄의 책임을 지고 누가 돌봄을 직접 제공할 것인지 등의 돌봄 조직화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Kittay, 1999; Tronto, 1993). 즉, '가족 내 정치'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족 내 주돌봄제공자가 되고, 주돌봄제공자가 된 후에는 자신의 일을 포기하거나 고립되어 다시 사회적 취약성을 경험하게 된다(윤자영, 2018; 지은숙, 2014).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사랑의 행위'로 인식되었으며(Romero & Pérez, 2016), 최근까지도 '진짜 노동'이 아닌 무급활동으로 간주되었다(안숙영, 2018). 그러나 점차 성별뿐 아니라 생산 및 재생산 기여도에 따라 돌봄이 분배되면서(석재은, 2020) 아동·청소년, 청년 등 주변화된 새로운 돌봄제공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청년은 오랫동안 가족 내 돌봄을 수행해왔지만(Aldridge & Becker, 1993), 돌봄수혜자로 인식되어 가족돌봄의 제공자로는 주목받지 못하였다(Becker, 2007). 그러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나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 YAC)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초기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산 기여도에 따라 돌봄을 분배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은 가족 내 잉여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청년은 입시에서 자유롭고 따로 돌볼 자녀 등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재생산에도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족돌봄을 맡도록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의 고령화에 따라 가족돌봄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발달단계인 중년기와는 달리 청년시기의 가족돌봄은 갑작스럽고 때에 맞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Fruhauf & Orel, 2008), 성인기 이행 사건의 지연과 맞물리는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1990년대에 영케어러 개념이 소개된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영케어러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Purcal et al., 2012). 그러나 지금까지의 영케어러 연구와 정책은 일관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Aldridge, 2018; D'Amen et al., 2021; Hendricks et al., 2021).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Aldridge and Becker(1993)의 정의에 따라 영케어러를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8세 이상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미미함이 지적되었다(Levine et al., 2005). 이에 해외에서는 영케어러의 연령범위를 확장하여,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25세 미만 혹은 29세 미만의 청년까지 '영케어러' 혹은 '영 어덜트 케어러'라는 이름으로 영케어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연구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D'Amen et al., 2021).

다양한 국가의 선행연구에서 따르던 청년 중 가족돌봄제공자의 비율은 5-20%로 상당히 이질적이다(Becker & Becker, 2008; NAC &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2015; Stamatopoulos, 2015).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정의가 일관되지 않고, 일반화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표본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Joseph et al., 2020). 한편,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알긴 어려운 상황이다. 대략적으로 한국의 만 20-34세 청년 인구인 964만 9,379명(통계청, 2021)을 국가별 가족돌봄청년 비율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48만 명에서 192만 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다는 추정치가 산출된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임을 고려할 때, 한국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여 영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호칭이나 정의가 별로 없다가, 최근에서야 영케어러의 정의를 구체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보건복지부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수립 방안'에서는 아픈 가족원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연구보다 정책적 관심이 선행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만 19-34세 영 어덜트 케어러를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스스로를 돌봄제공자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하는 돌봄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거나, 낙인을 우려해 주변 사람에게 가족 내 돌봄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숨겨진 돌봄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Smyth et al., 2011). 우리나라는 유교적 가족주의와 효 문화가 잔존하고 있어 개인주의적인 서구보다 가족돌봄청년들이 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숨겨진'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나 실효성 있는 연구 및 정책수립이 어려워진다(Pakenham et al., 2006). 이로 인한 지원의 부족과 고립은 가족돌봄청년들의 학업유지, 경제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dridge, 2018; Smyth et al., 2011).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돌봄청년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어 국가별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주관적인 용어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경우, 연구나 제도적 지원에 있어 배제되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Aldridge, 2018) 광의의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신체적 돌봄 또는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돌봄을 6개월 이상 일상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하였던 만 19-34세 미혼남녀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규범적으로 예상되는 가족돌봄으로, 현재 가족돌봄청년 논의와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돌봄이 아닌, 일상적 돌봄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6개월 이상의 돌봄기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정의에서는 윗세대 돌봄과 세대 간 돌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형제자매돌봄을 하는 청년도 제외하였다.

제 2 절 청년시기 가족돌봄의 특수성

청년시기의 발달적 특성이 가족돌봄과 맞물렸을 때 가족돌봄청년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청년시기의 특수성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은 크게 성인으로 이행하는 단계로서 청년에 대한 접근과 새로운 생애단계로서 청년에 대한 접근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청년시기를 성인이 되어 가는 성인전이기(transition to adulthood)로 보는 관점은 청년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접근으로, '성인'이나 '독립'과 같은 특정한 지위나 상태를 상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은 독립적인 단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성인의 모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성인의 역량 및 권리 획득을 강조한다(Bendit,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s)은 청년기를 교육종료, 취업, 결혼, 부모됨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애사건을 이행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강조하며, 이행 실패를 문제로 본다(이정봉, 2021).

생애과정관점에서 봤을 때 청년시기에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때에 맞지 않은(off-time) 비규범적 사건이다(Greene et al., 2017). 가족구성원의 질병은 그 가족구성원과 연결된 삶(linked lives)을 사는 청년의 교육, 진로준비, 취업, 독립, 연애 및 결혼, 부모됨 등에서 이행지체나 이행실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는 청년시기 가족돌봄이 학업중퇴(Sempik & Becker, 2014), 실업(Cass et al.,

2009), 제한된 직업선택(Hamilton & Adamson, 2013), 직장생활 방해(NAC &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2015), 연애 및 결혼목표 방해(Fingerman et al., 2022; Fruhauf & Orel, 2008) 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국내 연구에서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으며(최윤진, 김고은, 2022) 학업중단, 제한된 직업선택, 회사이직 등을 경험하였다(최영준 외, 2022).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과 진로에서의 변화는 정서적·신체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Becker & Becker, 2008; McLaughlin et al., 2019). 따라서 청년시기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생애사건과 가족돌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발달과업을 완수했다고 반드시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행성공이나 이행실패만으로 청년시기 가족돌봄 경험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기간의 연장, 취업연기, 만혼화, 비혼 등 이행기간이 장기화 및 복잡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청년시기를 성인이 되어 가는 성인전이기로 보는 관점은 이행 과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간과하고 청년을 고유한 상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청년시기를 새로운 생애단계로 보는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가 있다(Arnett, 2000). 생애사건 이행을 통해 성인이 되어감에 관심을 두는 성인전이기 관점과는 달리, 청소년기 및 성인기 사이의 고유한 발달단계로서의 성인진입기라는 시기 자체에 관심을 두는 관점이다. Arnett(2000; 2007)은 성인진입기의 청년이 자기중심성의 시기, 가능성의 시기, 정체성 탐색의 시기, 불안정한 시기, 중간에 낀 느낌이 드는 시기 특성을 경험한다고 제시했다. 이 발달적 특성에 따르면 청년은 가족과 분리되어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으로 인해 자신이 아닌 가족에게 집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 내 돌봄수혜자와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 Becker, 2008). 자율성을 확립하고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돌봄역할로 인해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과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여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Piemonte, 2010). 가족돌봄 의무와 책임 없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청년에 비해 가족돌봄청년은 자기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고, 자신의 인적 자원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조기현, 2022).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는 주로 청년시기 가족돌봄이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학업과 진로에서 요구되는 기대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2018).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청년시기에 가족돌봄은 가족돌봄청년의 자기효능감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Jones, 2018; Roling et al., 2019). 모든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족돌봄청년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청년의 목소리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 3 절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역동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은 가족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고려하는 관점으로, 가족의 내적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을 둘러싼 가족체계와 연결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Smith & Hamon, 2017). 가족은 돌봄의 출발점으로, 가족체계이론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돌봄 필요성은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돌봄제공자인 청년과 돌봄수혜자의 관계만을 보거나, 가족돌봄청년의 돌봄활동, 돌봄과정,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등에만 집중해 왔다(D'Amen et al., 2021; van

der Werf et al., 2022). 돌봄은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며(Ruddick, 1998), 서로 돌봄을 교환하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돌봄제공자와 수혜자 간 긴밀한 관계는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돌봄관계 조성에 기여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어 돌봄수혜자와 청년 돌봄제공자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다른 가족구성원의 존재 유무, 가족구조, 가족관계 등의 가족역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 또한 필요하다(Leu et al., 2018). 하지만, 청년의 가족돌봄에서 가족관계 내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역동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측면이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의 지지와 관계를 통해 돌봄 경험에 있어 위로를 얻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며(최윤진, 김고은, 2022; Petrowski & Stein, 2016),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거나 가족관계라는 지위를 이용한 갈취 및 착취를 당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조기현, 2022; 최영준 외, 2022). 세대 간 갈등이 높은 경우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Blanton, 2013). 또한, 돌봄책임을 다른 가족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경우 돌봄의 양이 줄어든다는 연구(Becker & Becker, 2008)도 있어 가족 내 다른 가족구성원의 존재 유무 및 돌봄수혜자 외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초기 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거나 조손가족의 손자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년 주돌봄제공자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의 제공자는 대부분의 돌봄을 책임지는 주돌봄제공자뿐만 아니라 주돌봄제공자를 도와 돌봄을 수행하는 이차돌봄제공자, 장보기와 가사노동으로 지원하는 삼차돌봄제공자,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부모인 주돌봄제공자와는 다른 조부모 돌봄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보조돌봄제공자 등이 있다(D'Amen et al., 2021). 돌봄활동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지원하는 것부터

가사노동과 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이러한 구분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돌봄청년이 돌봄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truckmeyer, 2015). 이를 반영하여 해외 문헌에서는 '돌봄 제공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며느리와 사위뿐 아니라 청(소)년인 노인의 손자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Shea et al., 2003).

주돌봄제공자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보조돌봄제공자인 가족돌봄청년도 존재하며(Boumans & Dorant, 2018), 특히 3세대 가족에서 조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보조돌봄제공자인 경우가 많다(Fruhauf & Orel, 2008). 아동과 달리 청년시기에는 노화로 인한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를 마주할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3세대 가족에서 가족돌봄청년이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 돌봄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3세대 가족에서 주된 돌봄수혜자가 조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세대의 질병이나 장애가 함께 동반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이 조부모와 부모 모두를 돌보는 이중돌봄부담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의 가족돌봄 경험에 있어 청년이 가족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어떠한 가족역동으로 인해 그러한 돌봄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돌봄제공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족돌봄청년뿐 아니라 3세대 가족에서 부모와 함께 보조적 돌봄을 하는 청년까지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과 모집

본 연구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신체적 돌봄 또는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돌봄을 6개월 이상 일상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하였던 만 19-34세 미혼남녀를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세대 간 돌봄과 세대 내 돌봄은 그 맥락과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형제자매 돌봄은 제외하였다.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또한 현재 가족돌봄청년 논의와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가족돌봄청년의 성별, 취업여부, 부모 혹은 조부모 돌봄 여부, 돌봄수혜자와의 동거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인적·가족적 맥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료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전형적 사례를 선택(조용환, 1999)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Patton, 2002)을 사용하였다.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온라인에 연구참여자 모집공고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모집공고를 보고 연구참여자가 먼저 연구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여 연구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우선순위로 확인한 후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일정 수의 연구참여자료를 확보하였다.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청년의 가족돌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명이 연구참여자료로 모집되었다.

2.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가명을 사용하였으며, 7명의 연구참여자 중 여성이 4명, 남성이 3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만 21세에서 30세까지로, 20대가 6명, 30대가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취업자는 2명이었으며,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이거나 대학 휴학 상태였다. 돌봄수혜자가 조부모인 경우는 5명, 부모인 경우는 2명이었으며, 돌봄수혜자를 10년간 돌본 1명 외에는 대부분 3년 이내로 돌봄을 수행하였다. 자취를 위해 독립한 1명과 돌봄수혜자의 사망으로 돌봄이 종료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돌봄수혜자와 동거 중이었다. 연구참여자의 형제서열은 다양했으며, 가구구성은 3세대 가족부터 이혼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다양하였다.

연구참여자별로 가족돌봄의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1 최나현 씨는 고모와 살던 친할머니가 고모와의 갈등과 우울증 심화로 인해 2년 전부터 거주지를 최나현 씨의 집으로 옮기면서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다. 최나현 씨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언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최나현 씨의 언니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이 모두 함께 살고 있지만, 주돌봄은 최나현 씨가 홀로 하고 있었다.

참여자 2 홍영미 씨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로 인해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10여년간 돌보고 있었다. 친척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형제자매도 없어 홀로 어머니를 돌보며 대학생활을 하였다. 시간제 근로도 하고 있었다.

참여자 3 백승호 씨는 외할아버지의 위암 수술 후 2년동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고등학교 남동생과 함께 외할아버지를 돌보았다. 외할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았으며, 현재는 대학생활을 위해 7개월째 자취 중이었다. 그러나 주말에는 부모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외할아버지와는 주기적인 통화 등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참여자 4 송준혁 씨는 친할머니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다가 고3 때 어머니의 사망 이후 독립하였다. 그 후 친할머니와 함께 살던 아버지도 사망하면서 25세에 친할머니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3년간 홀로 할머니를 돌보았다. 친할머니는 신장투석을 필요로 하는 치매 환자였고, 약 10개월 전에 사망하여 인터뷰 시점에서는 돌봄이 종료된 상태였다. 가족은 여동생만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 약 1개월 전 요식업 분야에 취업을 하였다.

참여자 5 김지연 씨는 친할머니,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사는 재혼가족의 자녀였다. 대학 휴학을 결정했던 1년 전 친할머니의 치매 판정 이후부터 친할머니를 돌보았다. 친할머니와 새어머니의 고부갈등,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심한 상황이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김지연 씨 본인과 새어머니가 친할머니 돌봄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다.

참여자 6 임형훈 씨는 친할머니, 아버지와 동거 중이었다. 초등학교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는 교류가 없는 상태였으며, 친할머니가 임형훈 씨를 돌보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 약 1년 전 친할머니의 간경화와 거동불편으로 인해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직장생활로 인해 돌봄활동을 하기 어려워 임형훈 씨가 주된 돌봄을 홀로 하였다.

참여자 7 이사랑 씨는 해외 워킹홀리데이 중 아버지의 위암말기 판정으로 귀국하였다. 어머니와 이사랑 씨가 아버지를 함께 돌보았고, 함께 사는 언니와 동생은 돌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이사랑 씨는 돌봄 이외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학 복학 후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표 3-1> 연구참여자의 특성

	이름 (가명)	성별	연령 (만)	돌봄수혜자	돌봄수혜자 질병	돌봄 기간	돌봄 상황	함께 돌보는 가족구성원	가구구성	교육수준 및 직업
1	최나현	여	21	친할머니	거동불편, 우울증	2년	진행	없음 (부모 맞벌이)	3세대 (2녀중 둘째)	대학생 무직
2	홍영미	여	24	친어머니	알코올 중독	10년	진행	없음	한부모 (외동, 친부 사망)	대학생 시간제 근로
3	백승호	남	22	외할아버지	위암	2년	종료	부모	3세대 (2남 중 첫째)	대학 휴학 시간제 근로
4	송준혁	남	27	친할머니	신장투석, 치매	3년	종료	없음	조손 (1남 1녀중 첫째, 부모 사망)	대학 자퇴 요식업
5	김지연	여	22	친할머니	치매	1년	진행	새어머니	3세대 (의붓3남매 중 셋째, 부모 재혼)	대학 휴학 시간제 근로
6	임형훈	남	30	친할머니	간경화, 거동불편	1년	진행	없음 (아버지는 직장인)	3세대 (외동, 부모 이혼)	대학 졸업 프리랜서
7	이사랑	여	25	친아버지	위암	1년	진행	어머니	2세대 (4남매 중 둘째)	대학생 시간제 근로

제 2 절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심층면접(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이용하였다. 심층면접은 개인의 감정, 의견,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기에 효과적이며,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들을 수 있다(Milena et al., 2008).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가족역동을 살피려는 연구목적에 부합한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별로 2회의 면접을 연구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Zoom)으로 실시하였다. 대면 면접을 실시한 참여자는 2명, 비대면 면접을 실시한 참여자는 5명이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1회 면접의 총 녹음시간은 평균 81분이었다. 면접에 앞서 유연한 면접가이드를 준비하였다. '가족 중 누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사전에 준비된 질문 외에도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가족돌봄의 배경과 가족돌봄이 청년시기 생애사건 및 특성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가족돌봄을 둘러싼 가족역동을 중심으로 가족돌봄과 관련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대면 면접의 경우 면접은 면접가이드를 지참하되 최대한 자료 보는 것을 삼가고, 적극적으로 필기하되 연구참여자의 집중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대면 면접은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주거지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를 연구참여자가 직접 면접 장소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대면 면접을 원하지 않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Zoom(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함을 서명한 이후에 면접을 시작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특성 상 면접 내용을 녹음할 것을 사전에 알리고, 면접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정보의 노출이 없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전화로 사전에 설명을 하였고, 연구참여자를 대면하는 경우에는 연구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비대면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를 전달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모두 녹음하였다. 비대면 면접은 Zoom에 내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음성만 녹음하였다. 녹음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상황 등에 대한 기록은 면접이 종료된 후 바로 현장노트에 적어 기록하였다. 현장노트는 면접자로서 자기반성을 통해 면접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왔고, 2차 면접 질문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녹음파일 및 전사본은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보관하였고, 암호를 설정하여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였으며, 익명성을 위해 개인 정보는 기호화 하였다. 녹음파일은 연구자의 전사자료 양식에 따라 치밀하게 전사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포함한 본 연구의 계획에 대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제 3 절 자료분석

자료수집부터 결과 도출까지 모든 과정은 Braun and Clarke(2019)가 제시한 성찰적 주제분석법(reflexive thematic analysis; RTA)을 토대로 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자료에 있는 의미나

주제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통찰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연구자는 자료에서 공유된 의미와 경험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Braun & Clarke, 2012). 특히 주제분석법의 다양한 방식 중 최초의 방식이자 가장 최근에 재명명 되어진 방식인 성찰적 주제분석법은 능동적이고 반사적인 연구자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제시한 일련의 단계에 얽매어 자료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성찰적이고 사려 깊은 해석 과정이 강조된다. 개인의 경험과 경험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의미들을 유용하게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보고하는 가족돌봄 경험과 그 의미에 중점을 두기 위해 성찰적 주제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aun and Clarke(2006; 2012)가 제시한 주제분석법의 6단계에 따라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순서에 맞게 진행할 뿐 아니라 지나간 단계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성찰적으로 해당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해석하는 등 반복적인 해석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의 6단계는 다음과 같다(Braun & Clarke, 2006; 2012).

첫째, 자료에 익숙해지기 단계에서는 전사한 자료를 정독하며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진술에 표시하여 중요한 진술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모든 형태의 질적연구에서 흔히 존재하는 단계로, 주어진 자료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단어를 읽으며, 자료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봄으로써 내용에 익숙해지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둘째, 초기코드 생성 단계에서는 심층면접 자료를 코딩하면서 각 코드와 관련된 진술을 수집하였다. 코드는 자료 일부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단위로, 연구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게 돕는다.

초기코드는 자료 내 다양성과 패턴들을 모두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주제 탐색 단계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지닌 코드끼리 묶었으며,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뿐 아니라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까지 실시하여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코드가 주제로 이동함에 따라 분석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제'는 중심 개념(central concept)으로 묶인 공유된 의미패턴을 의미하며, 토픽(topic)처럼 단순한 주제요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면적인 특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자료에 대해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의미하므로, 일관성 있는 의미패턴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넷째, 주제 검토 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들을 재검토하며 주제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확인하였다. 생성된 코드와 주제 간 유기성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을 통해 코드를 삭제하거나 다른 주제에 재배치하는 등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위해 검토하였다. 주제와 전체 자료 간 유기성 또한 확인하여 제시된 주제들이 연구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와 전체적인 흐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주제 정의 및 명명 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반복해서 비교하며 주제를 범주화하였으며, 이때 범주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명하였다. 각 주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고유의 의미를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짧은 제목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유익하고 간결하며, 기억에 남는 이름을 명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논문 작성 단계에서는 개별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진술을 찾아 선정한 후 내용을 기술하였다. 논문 작성 단계는 자료분석을 반드시 완료한 후에 시작되는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논문이나 보고서가 목표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첫 단계에서부터 작성된 메모와 같은 비공식적인 작성부터 최종 보고서와

같은 공식적인 작성까지 주제분석법에는 융합되어 이루어진다.

이상의 심층면접 자료 코딩, 코드체계와 코딩된 자료의 관리, 메모 작성 등은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MAXQDA 20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및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은 지도교수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수정, 보완하면서 진행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잉여인력 청년에게 떠넘겨진 가족돌봄

연구참여자들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가족돌봄을 강요당했다. 청년은 결혼을 하지 않아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법적 성인으로서 돌봄을 하기에 너무 어리지도 않았다. 경제활동도, 돌봄활동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잉여'적 존재로 인식되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구조 내에서 돌봄제공자가 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시기적 특성, '가족이니까 해야 되는 일'로 돌봄을 강요하는 아버지, 친척들의 돌봄 외면, 가족구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돌봄제공자가 되었다.

먼저, 아버지가 돌봄수혜자이거나 부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3세대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가족돌봄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부모를 노인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불효라고 여겨 꺼렸고, 가족에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아버지가 생각한 가족 내 돌봄 인력은 자신의 부인이나 청년 자녀였다. 아버지는 직장생활을 이어갔고, 가족의 경제를 책임졌다. 반면, 아버지에게 있어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인 청년, 혹은 직업이 있지만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청년은 가족구성원 중 경제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용인력으로 인식되었다. 아버지가 돌봄을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했다는 임형훈 씨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 아버지에게 가족돌봄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기에 청년의 가족돌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버지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시기에, 생산활동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가족돌봄을 청년이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일단 아버지께서 "그래도 집에 돌볼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요양 시설에는 어떻게 넣겠냐?"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돌봄을 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지연)

아버지는 많이 할머니를 돌보지 않으시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그냥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해요). (...) 제가 하는 직업 같은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공부하셔서 가지고 대학도 좋은데 나오시고 그런 쪽이셔서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좀 무시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임형훈)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에 가족돌봄을 경험하였다. 가족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청년이 예측하지 못한 비규범적 사건으로,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청년은 가족돌봄 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여겨졌다. 2020년 1학기 대학 수업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생 연구참여자 5명 중 4명은 "그냥 집에서 비대면 수업 들으면서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항상"(백승호)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집에 머무르는 청년을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인식"(최나현)하게 되었고, "어차피 학교 안 가는"(최나현) 청년은 가족을 돌보기에 최적으로 여겨졌다. 가족돌봄의 수행공간은 '집'이며, 돌봄제공자는 집에 머무르며 생산노동을 하지 않는 '잉여'인력이라는 인식이 가족구조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확실히 제가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엄마 아빠랑 언니랑 다 인식을 해서 저한테 일(돌봄)을 많이, 그냥 일(돌봄)이 저한테 왔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돌봄을) 맡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다 제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 상황이 처음이었으니까 인터넷 수업을 밖에서

듣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집이 제일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돌봄과) 맞물린 거죠.
(최나현)

하지만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돌봄은 가치 없고 쉬운, 청년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다.
"의견을 안 바꾸는" 아버지(김지연),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아버지(최나현)는 청년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이는 가족
내외의 갈등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아버지와 청년 간 갈등, 부부갈등,
조부모와 부모 간 갈등, 조부모와 청년 간 갈등 등 다양한 가족갈등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와의 갈등까지 일어났다. 청년들은 돌봄 자체보다
가족 내외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힘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최나현 씨와 김지연 씨는 가족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부모의 건강악화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돌봄수혜자인 조부모를
향한 원망과 관계 악화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하였다.

엄마랑 제가 계속 (아빠한테), "저번에 그때 길가에서 (할머니)
사고가 나셨을 때, (할머니의) 영치빠가 나가셨을 때 봐봐라.
이렇게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24시간 보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요양시설에 보내기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이러다 잘못하면은 길가에서 객사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네(아빠) 마음은 편하겠냐?" 엄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요양시설
보낸다고 다 불효가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해서 그렇게도 얘기,
설득도 하고, 엄마 아빠가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도 아빠가 그
의견을 안 바꾸세요. (김지연)

정말 집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었는데 아빠는 별다른 설명도

없고, 아빠도 버거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걸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면 아빠랑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고. (...)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얘기한 건데, 아빠한테 안 해서 엄마한테 한 건데,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아빠랑 싸우는 거죠. 아빠한테 화가 나서. (최나현)

연구참여자의 친척은 돌봄을 외면하였다. 친척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경제적 지원도 오갔던 백승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친척과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친척의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원은 없었다. 이사람 씨처럼 원가족과 친척 간 관계가 예전부터 좋지 않아 단절된 경우도 있지만, "자기 가정이 있어서"(송준혁), "상황이 경제적으로 그렇지 좋지 못해서"(임형훈) 친척이 돌봄을 외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척의 관점에서든 경제활동도, 돌봄활동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청년은 돌봄을 제공하기에 적절했고, 이에 청년에게 '어쩔 수 없이' 돌봄이 전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모는 사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모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안 왔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고모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고모는 없는 사람이고 작은아버지가 자기 가정이 있고 지금 정년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할머니를 모실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었고. (...) 고모는 나중에 할머니 장례식 때 뵈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와서 하시는 얘기가 고모의 가정환경이 좀 있었어요. 고모부께서 암에 걸리셨었고 그리고 고모의 고모부의 어머니시죠, 또 시어머니를 모셨었고, 이런 배경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러면서 그게 그런 죄책감이 있긴 있어서 아버지 장례식 안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예 이쪽에는 (고모가) 관심을 일단 끊었었고. (송준혁)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외동으로서, 맏이로서, 동거자로서, 다른 형제자매와는 달리 성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족돌봄을 하게 되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은 각 연구참여자의 가족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청년시기가 지닌 특성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청년에게 가족돌봄을 떠넘기기도 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구조와 특성으로 인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가족돌봄을 떠맡게 되기도 하였다.

형제자매가 있는 다른 청년과 달리, 홍영미 씨와 임형훈 씨는 외동이라 "불가피하게"(홍영미) 돌봄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가족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었다. 재혼가정인 김지연 씨는 "(무의식적으로) (의붓)언니 오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자신을 외동이라 소개하기도 해, 의붓형제에게 의지할 수 없는 모습을 드러냈다. 최나현 씨는 2녀 중 둘째로 언니가 있었지만, 언니는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어 직접적으로 돌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사랑 씨 또한 언니가 있었지만, 가족일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어 "예전부터 맏이가 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송준혁 씨의 여동생은 성인이었지만, 송준혁 씨가 동생을 향해 갖고 있던 빚진 마음과 자기 자신보다는 동생이 미래 진로에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독박 돌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도 하였다. 여동생 또한 장남이자 맏이인 송준혁 씨가 돌봄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송준혁 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이나 청소년인 형제자매와는 달리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돌봄제공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백승호 씨와 이사랑 씨는 청소년인 동생이 "돌봄을 하면 안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돌봄을 하기에 청소년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기를 벗어난 청년이라는 이유로 돌봄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생이 좀 더 가능성이 있었어요, 대학에 대한 결과물이(주: 대학 학업을 통해 좋은 진로를 얻을 가능성을 의미). 저는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 학습 장애 공황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기) 어려울 걸 짐작을 하고 있었고, "너(여동생) 괜찮으니까 네(여동생)가 (공부) 해라". 할머니를 모시게 된 이유도 사실 연결돼 있죠. 동생한테는 "졸업을 해라 그리고 나는 어차피 학업에 미래가 비전이 없으니까 모시겠다." 이렇게. (...) 어쩔 수 없이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잖아요. 아마 어렴풋이 동생이 '오빠가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동생이 그걸(돌봄을) 했다면 되게 서로 불행했을 것 같아요. (송준혁)

제 2 절 가족 속 숨겨진 주돌봄제공자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돌본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숨기거나, 실제로는 주돌봄제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주돌봄제공자로 인식하지 않는 '가족 속 숨겨진 주돌봄제공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우선 홍영미 씨의 친척들은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였다. 홍영미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압박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가족돌봄청소년에서 가족돌봄청년이 된 홍영미 씨는 돌봄을 시작한 이후 10년동안 친척들에게 자신의 돌봄을 숨겨야만 했다.

(친척들의 지원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숨기고 있었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자기 부모한테 알려준다가 자기 형제 자매한테 알려준다는 거를 되게 수치로 생각하고 있고, 되게 조금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가족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신신 당부도 있었고, 그런 무언의 압박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홍영미)

한편,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뿐 아니라 3세대 확대가족 내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은 숨겨진 주돌봄제공자였다. 여기서 '숨겨졌다'는 것은 보조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돌봄활동의 시간이나 강도가 주돌봄제공자와 비슷하거나, 가족구조로 봤을 때 주돌봄제공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주돌봄제공자는 가족돌봄청년이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3세대 가족에서 조부모세대의 주돌봄제공자는 주로 부모세대로 인식되며, 손자녀인 청년은 보조적인 돌봄만을 제공하거나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뿐 아니라 3세대 가족에서도 스스로를 주돌봄제공자로 인식하거나 주돌봄제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하고 있었다.

우선, 한부모 가족인 홍영미 씨와 조손가족인 송준혁 씨는 명백한 주돌봄제공자였다. 홍영미 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외동으로서 알코올 중독 어머니를 홀로 돌보았다. 부모 사망 후 여동생을 두고 친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홀로 친할머니 집으로 이사한 송준혁 씨 또한 단독으로 할머니를 돌보았다.

주돌봄제공자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돌봄제공자에 가까울 정도로 장시간 돌봄을 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백승호 씨의 경우에는 외할아버지를 온 가족이 함께 돌본다고 표현하였고,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도맡고 있어 자신을 주돌봄제공자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다. 백승호 씨는 자신의 방을 고등학생인 동생에게 내어주고 거실에서 지내면서 다른 가족구성원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에 아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수업이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스케줄이 유동적이었고, 수업 시간 외에는 공식적으로 할 일이 없었기에 낮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백승호 씨가 새벽돌봄을 도맡았다. 부모인 주돌봄제공자가 낮시간에 수행하는 것과 다른 조부모 돌봄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보조돌봄제공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벽시간이라는 특성상 수면부족과 수면방해를 경험했고, 그 시간에는 홀로 돌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만큼 돌봄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자신을 주돌봄제공자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 하루 중 절반 이상을 주돌봄제공자로서 살아갔다.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것 때문에 굳이 ** (지명) 안 와도 되는데 온 것도 적잖이 있었어요. 이제 내 방도 없고. 내가 제대로 쉴 공간도 없고, 할아버지가 새벽에 의지하시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압박감으로 다가와가지고. (...) 새벽에 할아버지랑 산책 나가고, 아침에 또 부족한 잠 이렇게 자고. 불규칙하게 살았어요 많이. (백승호)

3세대 가족 내에서 주돌봄제공자로 인식되지 않는 손자녀 세대는 '숨겨진' 주돌봄제공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4명의 3세대 연구참여자 중 3명은 부모세대와 함께 동거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돌봄제공자만큼 강도 높은 돌봄을 장시간 수행하였다. 3세대 가족에서 부모세대는 주로 '귀가 후 조부모 건강상태 확인하기', '병원예약 일정 확인하기',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지원하기' 정도의 돌봄만 수행하였고, 그 외의 모든 돌봄활동은 연구참여자가 도맡았다. 특히 3세대 가족에서 아버지는 주로 "바빠서"(최나현), "일이 없는 날이 아니면 돌보실 여력이 없고 사실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김지연) 돌봄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돌봄수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가사노동은 이들이 모두 경험하는 공통적인 것이었다. 돌봄수혜자의 "감찰자"(김지연)가 되어 돌봄수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때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활동도 하였다. 부모세대가 하지 않는 새벽 산책 같이 하기, 함께 식사하면서 말동무 하기, 우울한 이야기를 듣는 대화상대 되기, 같이 고스톱 치기와 같은 정서적 돌봄활동도 이들의 몫이었다. 청년시기였기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던 청년은 가족

중에서 돌봄을 하기에 가장 적합했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돌봄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많은 돌봄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가장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있었고요. 엄마 아빠는 평상시대로, 할머니 없었을 때도 항상 바빴고 그냥 그래서 없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부재를 했고 (…) (돌봄 순위는) 우선 제가 1위고, 아빠가 그래도 2위였던 것 같아요. (…)
아빠가 2위였고, 엄마가 3위고, 언니가 4위였죠. (최나현)

한편, 4명 중 김지연 씨만이 어머니와 자신이 공동 주돌봄제공자라고 표현했다. 김지연 씨는 대학 휴학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도 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고부관계에서 아버지의 가족돌봄 고집으로 인해 강제로 친할머니를 돌봐야 하는 새어머니가 안타까워 돌봄을 분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지연 씨의 새어머니는 김지연 씨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아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었고, 둘은 비슷한 수준의 돌봄활동을 상호 합의 하에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할머니를 두고 아예 두 사람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어디 스케줄 맞출 때나 어머니랑 얘기를 해봐야 되고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 지금은 계속 뭘 안 하더라도 밖에 거실에 나가서 할머니가 어떤지 동태도 살펴야 되고, 할머니가 혼자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시지 않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한숨) 그냥 제 삶보다는, 제가 무슨 제 삶도 (엄마랑 스케줄 맞춰봐야 하니까) 보고해야 되고, 제가 누군가의 그런 감찰자가 된 것 같아요. (김지연)

부부 중 한 명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주돌봄제공자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인 가족돌봄청년은 공동 주돌봄제공자였을 뿐 아니라 돌봄수혜자 이외의 가족까지도 돌보고

있었다. 암 말기인 아버지를 돌보는 이사랑 씨의 경우 돌봄의 정도를 보면 "공동이라고 하기에는 엄마를 생각했을 때(엄마와 비교했을 때) 한 게 없는 것 같다"며, 아버지 돌봄에 대한 주돌봄제공자는 어머니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버지를 씻기는 것과 화장실 수발은 어머니가 하였지만, 입원 시 병간호와 식사제공과 같은 그 외 모든 돌봄은 이사랑 씨와 어머니가 교대로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장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홀로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정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지원하였다. 성인인 자신과 달리 고등학생인 막내동생이 마주하게 될 '아버지가 없는 삶'에 대한 걱정도 표현하며, 앞으로도 동생을 자신이 "계속 케어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언니를 대신해 빨리 취업하여 "집의 생활비를 내가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사랑 씨는 아버지를 돌보는 주돌봄제공자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가족 모두를 돌보는 '가장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다.

육체적으로는 엄마가 저를 돌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제가 엄마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이제 갈수록 아빠가 더 아파지는 모습에 자꾸 엄마도 우울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 어쨌든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돈 벌어서, 집에 어쨌든 경제력이 아예 없으면 생활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해야(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사랑)

제 3 절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조부모 돌봄, 뿌리치지 못하는 부모 돌봄

연구참여자에게 부모 돌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발목 잡는, '당연하지 않은' 경험이었고, 조부모 돌봄은 조부모로부터 과거에 받은 돌봄을 갚는 '당연한' 경험이었다. 부모에게 사랑과 보호, 돌봄을 받는 것이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청년시기에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부모를 돌보는 연구참여자들은 노화로 인한 조부모의 질병을 비교적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인식했으며, 자신이 받은 돌봄을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다.

조부모와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는 연구참여자가 현재 조부모 돌봄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돌봄 경험을 인식하는 창구가 되기도 했다. 조부모를 돌보는 연구참여자 5명은 과거 조부모에게 받았던 돌봄을 되돌려주는 순환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맞벌이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해 조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돌봄을 받았다. 3세대 가족에서 부모세대의 돌봄 부재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게 하였고, 향후 청년이 된 손자녀는 노쇠해진 조부모를 돌보았다. "내가 할머니를 항상 돌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돌봄을 받았던 때가 있었지"라는 최나현 씨의 진술처럼, 청년들은 현재 자신의 돌봄제공 이전에 자신이 돌봄수혜자였음을 기억하였고, 자신에게 돌봄을 제공해주었던 가족구성원이 지금 현재 돌봄수혜자인 조부모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돌봄 이전부터 할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김지연 씨를 제외한 4명의 조부모 돌봄 청년은 모두 과거부터 조부모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형성해왔었다.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조부모 돌봄은 받은 것을 갚는 "당연한 보답"(임형훈)이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김지연)으로 "당연히"(임형훈), "응당해야만 하는 일"(백승호)로 인식된 조부모 돌봄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조부모에게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 채 억압하게 하였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표출된 감정은 강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돌봄수혜자와 과거부터 이어 온 친밀한 관계는 돌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돌봄은 스트레스가 따르는 일이었다. "일상을 깨뜨려

놓는"(김지연) 조부모는 당연한 돌봄의 대상이자 동시에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돌봐 준 조부모를 향해 "이러면 안 된다"(최나현)는 생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보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짜증과 분노를 돌봄수혜자를 향해 표출했다.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으며, 자학하거나 돌봄수혜자의 몸을 잡아 흔드는 등 온 몸으로 힘듦을 표현했다. 그러나, "당연히(짜증을) 내뱉으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고, 굳이 왜 뭐하러 그랬나 싶기도 하고"(임형훈)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감정 표출 후 '후회'와 '불편함', '죄책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 이들에게 감정 표출은 순간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돌아서서는 더 큰 짐"(송준혁)일 뿐이었다.

감정을 표출하지 않기 위해 무반응과 냉담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김지연 씨는 "할머니가 뭘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할 때도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먼저 뭘가 얘기를 거는 횟수는 이제 아예 없고요."라고 진술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없어졌으나, 김지연 씨는 "그래도 손녀인데" 할머니한테 못 맞춰드리는 자기 자신이 "되게 무능력하고 조금 못돼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조부모 돌봄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은 현재 돌봄을 힘들게 만들었다.

지금은 솔직히 제가 부처가 아닌 이상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까지 다스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좀 자체적으로 꺾어요. 할머니가 뭐라 해도 그냥 좀 아무 소리를 그냥 신경 안 쓰게 그냥 귀를 닫고 신경을 끄니까, 그냥 관심이 꺼지니까, 그냥 뭐라고 하든지 짜증도 그냥 덜 내는 편이고 거의 지금은 짜증을 안 내는 편이에요. 뭐라 하든 신경 안 쓰고 무응답이니까. (...) 해소가 되는 게 아닌데도, 할머니한테 그런 무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짜증적인 표출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답답하니까.

(김지연)

한편, 조부모가 아닌 부모를 청년시기에 돌보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돌봄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걸 제가 선택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라는 이사랑 씨의 진술을 보면 돌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부모 돌봄을 하는 청년들이 말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으니 해야 하는' 돌봄을 의미한다. 부모를 돌보고 있었던 이사랑 씨와 홍영미 씨는 돌봄이 아니었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 말했으며, 돌봄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었다. 이 생각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는 부모님이 아프신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저는 좀 빨리, 너무 빨리 찾아온 느낌? (...)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라는 이사랑 씨의 진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청년시기에, 충분히 그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로 부모를 돌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경험이었다.

그래서인지 부모 돌봄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원망'과 '한'의 감정을 많이 느꼈다. 너무 이른 시기에 돌봄을 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지만, 과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도 이유로 언급되었다. 홍영미 씨는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가 "보통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어머님이 어머님 같다고 느껴진 적이 없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좋아하진 않았어요."라고 진술한 이사랑 씨 역시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음을 언급하였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가족이기에 지금까지 뿌리치지 못했을 뿐, 청년들에게 부모 돌봄은 벗어나고 싶은 것이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가족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울격).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주체적인 그런 삶이 있는데, 저는 제 주체적인 삶까지 가족이 침범을 해서 제 삶을 주체적으로 제대로 못 사는 게 솔직히 저는 되게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홍영미)

그냥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냥 좀 한 번도 다정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아빠를 보면서. 그리고 사실 아빠가 좀 엄마를 많이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진짜 왜 저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고. 저한테도 뭐라고 할 때마다 그냥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보다 '왜 저러는 거야?' 이 생각을 솔직히 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아빠 아프다고 들었을 때도 원망을 먼저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되네.' 물론 그런 생각만 한 건 아닌데, '지금 내가 안 돌아가면 이제 아빠를 다시는 못 보는 거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실제로 든 생각은 좀 '원망스럽다'가 더 컸고요. 그리고 아빠랑 그렇게 사이 좋게 지냈던 적이 없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사랑)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수혜자 외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는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하여금 가족돌봄을 견디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힘이 되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하기도 하였다. 특히 형제자매 혹은 돌봄수혜자가 아닌 부모의 지지는 돌봄을 견디고, 돌봄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주었다. 형제자매로부터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다른 연구참여자들과는 달리, 최나현 씨는 돌봄과정에서 "언니가 항상 있었다"고 했다.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어 함께 동거 중이진

않았지만 언니가 집에 자주 왔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고통에 "함께 한다는 느낌은 계속 있었다"고 표현했다. 언니는 '두 번째 엄마'와 같은 존재였고, 돌봄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해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저의 힘들음을 엄마는 또 케어를 해주는 역할이 있었어요."라는 최나현 씨의 진술처럼, 언니뿐 아니라 어머니 또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는 최나현 씨로 하여금 이해하기 힘들었던 할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돌봄수혜자인 할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될 수 있었다. 아버지와 의 갈등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최나현 씨의 편이 되어주었고, 돌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버지에게도 최나현 씨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는 정말 진짜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할머니와 아빠의 history를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 생활 때부터 봐왔던 그런 (할머니와 아빠의) 과거의 모습들도 있고, 또 할아버지랑 의사소통이 어땠는지도 다 아니까. "근데 이래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빠를) 불쌍하게 생각해라." 그러시면 제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랑 아빠가)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했던 것도 많고. (최나현)

반면, 아버지가 재혼한 김지연 씨의 경우에는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으며, 가족돌봄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지연 씨에게 의붓형제들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새어머니와 공동으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철저히 돌봄만을 위해 형성된 관계일 뿐, 새어머니에게 의지하거나 지지를 받기 보다는 "각자가 (알아서) 각자를 챙기는" 관계였다. 친할머니의 차별과 무시로

인해 새어머니와의 고부관계가 이전부터 좋지 않았고, 치매 발병 이후 가족돌봄을 고집하는 아버지로 인해 새어머니는 원치 않는 돌봄을 받게 되었다. 할머니를 돌보는 기간동안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 갈등은 극심해졌고, 이 과정을 지켜본 김지연 씨에게 할머니는 원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김지연 씨는 돌봄 경험 자체보다 돌봄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갈등이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표현했으며, 김지연 씨는 돌봄뿐 아니라 가족 자체가 벗어나고 싶은 "감옥같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가족불화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켰고, 돌봄으로 인한 관계악화는 다시 가족불화로 이어졌다.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가 그런 어린 시절에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집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갖고 제공을 하셨으니까 조금 밋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약간 애증 같기도 해요. (...) 또 집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스트레스죠. 물론 할머니를 케어하는 데서 오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힘듦도 있지만. (김지연)

제 4 절 가족돌봄으로 청년시기를 잃어버림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을 청년시기와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청년시기에 경험하는 생애사건 및 성인진입기 특성과 맞물리는 경험으로 지각하였다. 청년시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 청년시기의 돌봄에 대해 청년시기를 잃었다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잃을 것이 없어 괜찮았던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청년시기 가족돌봄은 생애과정관점에서 말하는 성인전이기와 깊이 맞물려 있었다. 가족돌봄 경험이 성인전이기의 대표적인 생애사건인 졸업,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백승호 씨를 제외한 6명의 청년은 가족돌봄 경험이 생애사건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게끔 만들었다고 인식했다.

대학 졸업 전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던 이사랑 씨는 위암 말기 아버지를 돌보게 되면서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계획에 없던 대학 복학을 결정했다. 경제활동을 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대학 졸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대학 휴학 중 돌봄을 시작하게 된 김지연 씨에게 돌봄은 졸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없는' 기간으로 인식되었고, 대학 휴학이나 취업준비생 상태를 유지할수록 의미 없는 돌봄의 시간만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졸업과 취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취업을 앞두고 희망하는 직종과 직업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보이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김지연 씨와 이사랑 씨는 돌봄을 하면서 일-생활균형이 보장되는 직업보다는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했다. 김지연 씨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해서 돌봄과 같은 가족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이사랑 씨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마련하면서도 독립을 하고 싶었기에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영미 씨 또한 자기자신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생각하면 불안정한 직종의 특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원래 원했던 직종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전공을 바꾸는 선택을 하였다. 임형훈 씨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기보다는 회사에 취업했을 때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돌봄제공자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5-6년 간은 프리랜서로서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경제적인 독립을 원해요. 그게 아니면 자꾸 집에 손을 이렇게 벌리는 순간, 제가 맡아야 되는 책임이나 의무도 하나씩 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아야 제가

깊어져야 될 책임감이나 무게도 하나씩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김지연)

기초생활수급자인 송준혁 씨는 3년이라는 돌봄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할머니 돌봄에 필요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받았는데, 어차피 할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러한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참 사람을 약간(잠시 정적)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거든요. 진짜 좋은 제도인데 사람을 진짜 약간 좀 계속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진술에서 볼 수 있다. 일할 이유도, 방법도, 의미도 없다보니 생활에 안주하게 되었고, 불안했던 첫 마음은 점차 "이렇게 평생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가족돌봄이 아니었다면 청년의 생애과정 속 전이는 그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청년시기 가족돌봄은 청년으로 하여금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이다.

할머니가 만약에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학을 계속 다니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학소재지)에 있었겠죠. 아마 학교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뭔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할머니 모시면서 소홀해진 활동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자꾸, 자꾸 이제 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주하는 사람이 되고, 나 그냥 돈 많이 안 벌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벌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고. (송준혁)

청년시기 가족돌봄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생애사건인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족돌봄청년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연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냥 정말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내가 죽겠는데 뭘 연애야,'" (최나현)라는 진술처럼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려운 연구참여자에게 연애는 사치였다.

가족돌봄은 결혼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사랑 씨처럼 아버지가 세 번의 암 판정을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결혼을 하기 꺼려진다는 경우도 있었고, 할아버지를 돌보는 백승호 씨처럼 미래에 혼자인 경우 외로울 것이 우려되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 경우도 있었다. 최나현 씨처럼 돌봄 이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으나,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남들은 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싫었고. 그리고 엄마는 너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 병수발 드는 걸 보니까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진짜 내 인생이 하나도 없겠구나' 좀 그런 생각 들고. 사실 엄마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결혼하지 말고 네가 성공해서 평생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평생 안 하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예요. (이사랑)

저도 비혼주의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는 걸 보면서, '아, 비혼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너무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결혼해야겠다'는 마인드로 바뀐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백승호)

가족돌봄청년들은 청년시기를 성인진입기의 대표적인 특성인 '자기중심성의 시기', '가능성의 시기', '정체성 탐색의 시기'로 인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청년시기는 "자아를 찾는 그런 단계"(이사랑)였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주어진 가능성에 대해 "무모하게 도전해봐도 되는 시기"(김지연)였으며, 불안정할지라도 조금씩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야 확장 단계"(홍영미)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돌봄으로 인해 청년시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청년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다"(김지연)고 말하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최나현)고 진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포기하였고, 자아정체성을 탐색할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다른 청년들에 비해 가족돌봄청년은 "청년시기만의 특권인 주체적인 삶"(홍영미)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억눌리고 있었다. 청년시기에 대한 기대와 가족을 돌보고 있는 현실의 삶 간 괴리가 존재했다.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진로 설정을 부모님이랑 한다가 찾아가는 탐색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그게 공백기잖아요. 제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느 분야에 흥미가 있고, 이런 걸 탐색할 시기에 저는 그때 오히려 부모를 케어하고 가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진짜, 그때부터 저 자신에 대해서 제 퍼즐을 잃어버린 거죠. 부모에 대한 그런 책임감으로 인해, 그걸 내가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동반된 것들로 인해, 내 삶 속에 나만의 퍼즐을 맞춰서 나를 찾아갔어야 되는 그 과정이 (없었던 거죠). 제 퍼즐 조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홍영미)

이에 연구참여자에게 청년시기 가족돌봄은 의미가 없거나, 자연스럽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내 인생은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이사랑)라는 진술에서 보이듯,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돌봄은 '억울하고', '갑갑하고',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김지연 씨에게 가족돌봄은 자기 자신을 잃어간, 딱히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의미보다는 해야 되는 일? 그냥 숙제처럼 느껴지는 일이라서"라는 진술을 통해 볼 수 있듯, 돌봄은 하기 싫지만 맡아야 되는 일에 불과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청년시기 가족돌봄은 청년시기를 잃어버리거나 누리지 못한 채 '아깝게' 지나가는 시간이었다.

(돌봄을 했던 지난 1년이) 너무 너무 아깝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남들은 스물 다섯이, 막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스물 다섯이 가장 꽃다운 나이"라고. 근데 그냥 그 시기를 전부 저버린 느낌? (이사랑)

제 5 절 청년이라서 차라리 나은 가족돌봄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청년시기에 가족을 돌본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 다행이라는 의미는 가진 것이 없어 잃을 것도 없는 청년시기였고, 성인이 되기 이전에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비해서는 다행이라는 의미였다. 또한, 막막함과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시기에 가족을 돌봄으로써 성장하고 자부심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청년시기 가족돌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이른 시기와 더 늦은 시기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처한 가족돌봄 상황을 '그나마', '차라리' 나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사람도 (체력적으로 돌봄을 하기) 힘들고, 나이가 어리면 젊은 그때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다른 일들 때문에 돌봄을 하기) 힘들 거고 한데, 그걸(돌봄을) 어떤 마인드랑 어떤 그냥 생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임형훈)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에 비하면 차라리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돌봄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홍영미 씨는 청소년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어머니 돌봄을 이어왔는데, 청소년기에 비해 청년이 된 현재의 어려움은 "별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돌봄을 하면서 성장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험에 적응하였다고 했다. 또한 같은 20대였지만, 최나현 씨는 가족에 대한 의식과 생활 습관이 비교적 견고해지는 20대 후반보다는 20대 초반에 가족돌봄을 경험하였기에 그나마 자신이 돌봄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20대 후반인 송준혁 씨는 대인관계를 활발히 형성하는 20대 초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려보고 난 후 가족돌봄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표현했다.

제가 나이가 좀 더 차가지고 예를 들어 20대 후반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랑 살면서 제 생활이 정말 바뀌었거든요, 거의 모든 면이. (...) 가족에 대한 의식, 나의 생활 습관, 누가 있어서 이걸 배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게 변화해야 되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늦었으면. (최나현)

'20대 초반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 20대 초반에 제법 재밌게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 20대에 만났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못 만났을 테니까 만약에 할머니를 모셨더라면.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20대 초반에 한창인 대학생활이라든지 그 커뮤니티를 즐겨야 할 나이에 할머니를 모시지 않았던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 만약에 대학을 붙어 놓고 갑자기 20살에 할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거는 진짜 우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만약에 그 할머니 때문에 휴학이나 자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꺾어보지 못했던 어떤 가치잖아요? 그러면 좀 우울하지 않았을까... (송준혁)

성인진입기 특성 중 불안정성에 집중하여 청년시기였기에 돌봄을 해도 오히려 잃을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송준혁 씨는 돌봄이 아니어도 막막했을 시기가 청년시기라고 평가하였다.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상태로 3년이라는 시간동안 돌봄만을 했던 송준혁 씨는 잃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괜찮았던 시간으로 돌봄을 평가하였다. "저는 '그때 무언가 생산적인 걸 할 수 있었느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 물론 생산적인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라는 진술을 통해 드러나듯, 송준혁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지 않았다. 때문에 송준혁 씨에게 돌봄은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었다.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신이 없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불안정한 이 시기에 가족돌봄을 해냈다는 사실은 청년에게 자부심이 되었다. 송준혁 씨에게 가족돌봄은 그 자체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다. 돌봄의 의미는 폄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히 무겁고,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와서 뿌듯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저 그냥 고작 나라는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해냈다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정도. (...)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 꽤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뿌듯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말하면서도 사실 뻔뻔하긴 한데, 진짜 좀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나 스스로는 애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송준혁)

가족돌봄청년들은 가족돌봄으로 인한 청년시기의 희생을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임형훈 씨는 "항상 사람이 좋게 마음먹고 항상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자신이 경험한 가족돌봄은 "좋은 일"이었고, 미래에 자기자신에게 좋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열망이 컸던" 송준혁 씨는 친할머니 돌봄을 통해 얻게 된 경험들이 훗날 이러한 열망을 이루는데 "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사랑 씨는 돌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효능감을 얻게 되었다. 때문에 돌봄 경험은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닌,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홍영미 씨는 돌봄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관점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최나현 씨도 "사람 대하는 법"을 많이 배웠다고 말하며, 항상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받는 게 익숙했던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돌보는 자"가 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누군가를 돌볼 때의 가치"를 느꼈다고 했다.

청년들은 가족돌봄을 통해 가족과 보다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돌봄수혜자뿐 아니라 함께 돌봄을 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이사랑), "가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고"(최나현), "돌봄 때문에 가족 간 대화가 늘어났다"(임형훈)는 점에서 돌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청년시기 가족돌봄은 희생이기도 했지만, 가족돌봄청년들은 가족돌봄으로 얻은 것들과 변화된 자기 자신을 통해 청년시기 돌봄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사실 저는 제가 되게 이기적이고, 가족들이랑도 하나도 안 친하고, 저 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스스로?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되면서 '나도 어쨌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도 되게 가족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걸 좀 스스로 안 것 같아요. 원래 진짜 그전에 좀 가족애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 가족들 얘기할 때도 사실 잘 이해 못했어요. '왜 이렇게 막 가족을 챙기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서는 어쨌든 '나도 내 가족들을 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지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 그냥 사실 막 엄청 힘든 시간만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좀 더 스스로 뿌듯함도 좀 있었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 가지고 좀 그런 게 있고. (이사랑)

내가 만약에 '돌보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몰랐을 게 훨씬 더 많고,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겠다. (...) 사람을 대할 때 원래 저는 항상 받고 싶은 입장이었고 그게 너무 익숙했는데. 사실 제가 순장(동아리 멘토)의 삶을 결단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돌봐주는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관계에서 누군가를 돌볼 때의 가치를 제가 느낀 거예요. (최나현)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년이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면서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청년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가족역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족돌봄청년 7명을 심층면접하고 성찰적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잉여인력 청년에게 떠넘겨진 가족돌봄', '가족 속 숨겨진 주돌봄제공자',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조부모 돌봄, 뿌리치지 못하는 부모 돌봄', '가족돌봄으로 청년시기를 잃어버림', '청년이라서 차라리 나은 가족돌봄'의 다섯 가지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중심주제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잉여인력인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의 강요 혹은 가족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돌보게 되었다. 아버지와 친척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청년은 마침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집에 머무르는 인력이었고, 이에 평가절하된 가족돌봄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강요된 가족돌봄으로 성인전이기의 주요 생애사건인 졸업,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영역에서 방해나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시간과 에너지 소진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정체성을 탐색하는 가능성의 시기인 성인진입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돌봄이 경제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은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로 하여금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을 갖게 한다(윤자영, 2018)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모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대부분 무직이거나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청년이 아닌 가족돌봄제공자에 비해 가족돌봄청년의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 가구 비율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최영준 외, 2022)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부모의 이혼, 재혼, 사망 등을 경험한 연구참여자가 많았는데, 부모세대의 부재는 가족돌봄청년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지도록 하였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상황의 강요로 돌봄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청년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인적 자본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장기적으로 고용이나 미래 소득에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Stamatopoulos, 2018),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돌봄 불평등의 악순환'(Tronto, 2013)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가족돌봄청년은 가족 속 '숨겨진' 주돌봄제공자 역할을 하였다. 가족돌봄청년들은 자신을 주돌봄제공자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주돌봄제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장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특히 3세대 가족에서 부모세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조부모 돌봄을 떠넘기거나, 가족돌봄청년과 공동으로 돌봄을 하거나, 가족돌봄청년이 돌볼 대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서 돌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머지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문현아, 차승은, 2020)와 같은 맥락이다.

1차적인 돌봄을 수행하는 주돌봄제공자는 중년의 몫으로 간주되어 왔으며(Brody, 1990), 이러한 인식은 3세대 가족에서 가족돌봄청년이 부모세대에 가려져 돌봄제공자로 주목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주돌봄제공자, 보조돌봄제공자 등으로 돌봄제공자를 구분하는 가족돌봄의 연구동향은 가족구조 내 돌봄에서 위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주돌봄제공자와 보조돌봄제공자 청년 모두 돌봄 스트레스와 돌봄부담을 경험한다는 점(Struckmeyer, 2015)에서 이러한 구분은 모호하며, 보조돌봄제공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축소시킨다. 주돌봄제공자와 비슷한 수준과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였음에도 '숨겨진' 가족돌봄청년은 스스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간과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이거나 조부모가족의 손자녀인 경우와 같이 명백하게 주돌봄제공자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지원은 숨겨진 가족돌봄청년을 사각지대에 놓을 우려가 있다.

셋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수혜자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와 같은 전체 가족의 역동은 청년시기 가족돌봄 경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돌봄청년에게 부모 돌봄은 가족이라 뿌리치지 못할 뿐, '당연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부모에게 보호와 돌봄을 받는 것이 더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청년시기에 부모 돌봄은 자연스럽게 않았으며,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부모 돌봄에 비해 비교적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며, 과거 받은 돌봄을 돌려주는 '당연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받았던 돌봄을 '갚는다'는 인식은 돌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돌봄 스트레스와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가족돌봄청년들은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특히 가족의 지지나 불화는 돌봄을 견디게 하거나 돌봄에서 벗어나고 싶게 하였다. 이는 가족관계가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돌봄청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가족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최영준 외, 2022; 최윤진, 김고은, 2022)와 일치한다. 가족의 지지는 돌봄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준 반면, 가족의 불화는 돌봄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켰다.

현재 가족돌봄청년 관련 논의에서 가족돌봄청년이 누구를 돌보는지, 또 누구와 함께 돌보는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수혜자가 조부모인지 부모인지에 따라 돌봄의 시작, 동기, 스트레스의 원인 등이 달랐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수혜자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가족의 지지 혹은 불화 또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서 중요하였는데, 가족돌봄 연구에 있어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의 관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족역동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청년시기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한편, 어차피 잃을 것이 없어서 차라리 나은 시기라고도 생각하였다. 가족돌봄은 청년시기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시기에 경험하는 생애사건 및 성인진입기 특성과 긴밀하게 맞물리는 경험이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성인전이기의 대표적인

생애사건인 졸업,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영역에서 방해나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시간과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정체성을 탐색하는 가능성의 시기인 성인진입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년들은 더 이른 시기와 더 늦은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처한 가족돌봄 상황을 차라리 나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돌봄이 아니었어도 막막했을 청년시기였기에 돌봄을 해도 오히려 잃을 것이 없었다고 생각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가족돌봄으로 인해 청년시기를 희생하였지만,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그리고 가족이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기회로 여기기도 하였다.

청년시기 가족돌봄 경험은 청년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돌봄청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었다. 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동시에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해외 연구(Stamatopoulos, 2018)와 일치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험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화할 경우 청년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수도 있다(조기현, 2022). 또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에 대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문제수준과 부정적 결과에 비해 청년이 자신의 문제수준을 낮게 여기게 될 경우 가족돌봄청년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발굴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른 시기의 가족돌봄과 마찬가지로 청년시기의 가족돌봄에도 양면성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청년의 '숨겨진'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과 같은 위기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수많은 가족돌봄청년이 있으며, 주돌봄제공자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돌봄청년을 둘러싼 정책과 지원은 주돌봄제공자인 가족돌봄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별 지원제도 또한 자신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의 발굴 및 조사에 있어 세대정보나 복지수급과 같은

위기정보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인진입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시기에 가족돌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 개인을 위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이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히려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에 주저않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수급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에 제한을 주거나 취업을 미루게 되는 등 자립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질적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수가 자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가족돌봄청년 7명의 경험은 다양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보다 다양한 삶의 맥락을 아우르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참여자가 대부분 20대로, 대학생이 많았다. 20대 대학생에게 기대되는 규범과 30대에 기대되는 규범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의 가족돌봄 경험을 충분히 비교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부모 돌봄과 조부모 돌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형제자매를 돌보는 청년도 적지 않으며, 부모 돌봄이나 조부모 돌봄과는 경험의 맥락이 다를 수 있다. 청년시기라는 특성과 형제자매 돌봄이 만났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가족역동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을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욱이 청년시기 가족돌봄이 청년시기를 잃어버리게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나아가 청년시기와 가족역동이 돌봄 경험 속에 깊이 맞물려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2022).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문현아, 차승은(2020).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과 딜레마: 누가 돌보고 어디에서 돌봐야 하는가. **가족과 문화**, 32(1), 102-131. <https://doi.org/10.21478/family.32.1.202003.004>
- 석재은(2020).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이 말하는 것들: 부정의(不正義) 한 독박 돌봄으로부터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노인복지연구**, 75(4), 117-141. <https://doi.org/10.21194/kjgsw.75.4.202012.117>
- 안숙영(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1-32. <https://doi.org/10.30719/JKWS.2018.06.34.2.1>
- 윤자영(2018).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한국사회정책**, 25(2), 31-55. <https://doi.org/10.17000/kspr.25.2.201806.31>
- 이정봉(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8), 1-21.
- 조기현(2022). **새파란 돌봄**. 이매진.
-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 지은숙(2014). 부모를 돌보는 비혼 남성의 남성성: 일본의 젠더 질서와 가족 돌봄의 역학. **한국여성학**, 30(4), 77-117.
- 최영준, 김보영, 김윤영, 임소현, 오서은(2022). 영케어러(Young Carer)의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혼합방법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19-1197.
- 최윤진, 김고은(2022). 영 케어러(Young Carer)의 돌봄 경험에 대한 탐색. **청소년학연구**, 29(11), 155-184. <https://doi.org/10.21509/KJYS.2022.11.29.11.155>
- 통계청(2021.09.27). **인구총조사-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2002&conn_path=I2
- Aldridge, J. (2018). Where are we now? Twenty-five years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on young carers. *Critical Social Policy*, 38(1), 155-165. <https://doi.org/10.1177/0261018317724525>

- Aldridge, J., & Becker, S. (1993). *Children who care: Inside the world of young carers*. Loughborough University.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https://doi.org/10.1111/j.1750-8606.2007.00016.x>
- Becker, S. (2007). Global perspectives on children's unpaid caregiving in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young carers' in the UK, Australia, the USA and Sub-Saharan Africa. *Global Social Policy*, *7*(1), 23–50.
<https://doi.org/10.1177/1468018107073892>
- Becker, F., & Becker, S. (2008). *Young adult carers in the UK. Experiences, needs and services for carers aged, 16–24*. University of Nottingham.
- Bendit, R. (2006). Youth sociology and comparative analysis in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apers: Revista de sociologia*, *79*, 49–76.
- Blanton, P. W. (2013). Family caregiving to frail elders: Experiences of young adult grandchildren as auxiliary caregiver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11*(1), 18–31. <https://doi.org/10.1080/15350770.2013.755076>
- Boumans, N. P., & Dorant, E. (2018). A cross-sectional study on experiences of young adult carers compared to young adult noncarers: Parentification, coping and resilien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32*(4), 1409–1417.
<https://doi.org/10.1111/scs.12586>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Braun, V., & Clarke, V. (2012). *Thema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aun, V., & Clarke, V. (2019). Reflecting on reflexive thematic

-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in Sport, Exercise and Health*, 11(4), 589–597.
<https://doi.org/10.1080/2159676X.2019.1628806>
- Brody, E. (1990). *Women in the middle: Their parent–care years*. Springer.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9.11.22). *Unpaid eldercare in the United States–2017–2018. Data from the American time survey*.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news.release/pdf/elcare.pdf>.
- Canell, A., Bashian, H., & Caskie, G. (2020). Do the reasons emerging adults become informal caregivers relate to future willingness to care? A mixed–methods study. *Innovation in Aging*, 4(1), 357–357.
<https://doi.org/10.1093/geroni/igaa057.1148>
- Cass, B., Smith, C., Hill, T., Blaxland, M., & Hamilton, M. (2009). Young carers in Australia: Understan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ir care giving. *FaHCSIA Social Policy Research Paper*, 38. Available at SSRN.
<http://dx.doi.org/10.2139/ssrn.1703262>
- Chevrier, B., Lamore, K., Untas, A., & Dorard, G. (2022). Young adult carers' identification, characteristics, and support: A systematic review. *Front. Psychol*, 13. Article 990257.
<https://doi.org/10.3389/fpsyg.2022.990257>
- D'Amen, B., Socci, M., & Santini, S. (2021). Intergenerational car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young and young adult caregivers of older people. *BMC Geriatrics*, 21(1), 1–17.
<https://doi.org/10.1186/s12877-020-01976-z>
- Day, C. (2015). Young adult carers: a literature review informing the re–conceptualisation of young adult caregiving in Australia.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855–866.
<https://doi.org/10.1080/13676261.2014.1001826>
- Fingerman, K., Zhang, S., Zhou, Z., Ng, Y. T., Birditt, K., & Zarit, S., (2022). Caregiving for an older relative in young adulthood. *Innovation in Aging*, 6(1), 57.
<https://doi.org/10.1093/geroni/igac059.221>

- Fruhauf, C. A., & Orel, N. A. (2008). Developmental issues of grandchildren who provide care to grandpar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7(3), 209–230. <https://doi.org/10.2190/AG.67.3.b>
- Greene, J., Cohen, D., Siskowski, C., & Toyinbo, P.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giving and the mental health of emerging young adult caregivers.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44(4), 551–563. <https://doi.org/10.1007/s11414-016-9526-7>
- Hamilton, M. G., & Adamson, E. (2013). Bounded agency in young carers' lifecourse–stage domains and transit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16(1), 101–117. <https://doi.org/10.1080/13676261.2012.710743>
- Hendricks, B. A., Kavanaugh, M. S., & Bakitas, M. A. (2021). How far have we come? An updated scoping review of young carers in the U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8(5), 491–504. <https://doi.org/10.1007/s10560-021-00783-8>
- Jones, L. (2018). *Exploring the resilience and identity of young carers in higher education: A thematic analysis*. Master's thesis.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 Joseph, S., Sempik, J., Leu, A., & Becker, S. (2020). Young carer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n overview and cri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Adolescent Research Review*, 5(1), 77–89. <https://doi.org/10.1007/s40894-019-00119-9>
-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021218>
- Leu, A., Frech, M., & Jung, C. (2018).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in Switzerland: Caring roles, ways into care and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6(6), 925–934. <https://doi.org/10.1111/hsc.12622>
- Levine, C., Hunt, G. G., Halper, D., Hart, A. Y., Lautz, J., & Gould, D.

- A. (2005). Young adult caregivers: A first look at an unstudied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11), 2071–2075.
<https://doi.org/10.2105/AJPH.2005.067702>
- Lewis, F. M. (2018). *Who am I?: an exploration of identity development of young adult carers in the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 McLaughlin, J. K., Greenfield, J. C., Hasche, L., & De Fries, C. (2019). Young adult caregiver strain and benefits. *Social Work Research, 43*(4), 269–278.
<https://doi.org/10.1093/swr/svz019>
- Milena, Z. R., Dainora, G., & Alin, S. (2008).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comparison between focus–group and in–depth interview. *Annals of Faculty of Economics, 4*(1), 1279–1283.
- 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 [NAC] &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2015.06.04). *Caregiving in the U.S. Research report. 2015*. https://www.caregiving.org/wp-content/uploads/2020/05/2015_CaregivingintheUS_Final-Report-June-4_WEB.pdf
- Pakenham, K. I., Bursnall, S., Chiu, J., Cannon, T., & Okochi, M. (2006). The psychosocial impact of caregiving on young people who have a parent with an illness or disability: Comparisons between young caregivers and noncaregivers. *Rehabilitation Psychology, 51*(2), 113–126.
<https://doi.org/10.1037/0090-5550.51.2.113>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SAGE.
- Petrowski, C. E., & Stein, C. H. (2016). Young women's account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hips, and personal growth when mother has mental illnes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9), 2873–2884. <https://doi.org/10.1007/s10826-016-0441-6>
- Piemonte, N. M. (2010). *The contradictions of caregiving, loss, and grief during emerging adulthood: An autoethnography and*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rizona State University.
- Pope, N. D., Baldwin, P. K., & Lee, J. J. (2018). "I didn't expect to learn as much as I did": Rewards of caregiving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5*(3), 186–197. <https://doi.org/10.1007/s10804-018-9284-2>
- Purcal, C., Hamilton, M., Thomson, C., & Cass, B. (2012). From assistance to prevention: Categorizing young carer support services in Australia,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6*(7), 788–806. <https://doi.org/10.1111/j.1467-9515.2011.00816.x>
- Roling, M., Falkson, S., Hellmers, C., & Metzger, S. (2019). Early caregiving experiences and the impact on transition into adulthood and further life: A literature review.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34*, 539–551. <https://doi.org/10.1111/scs.12757>
- Romero, M., & Pérez, N. (2016). Conceptualizing the foundation of inequalities in care wor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2), 172–188. <https://doi.org/10.1177/0002764215607572>
- Ruddick, S. (1998). Care as Labor and Relationship. In MS Halfon and JG Haber (Eds.), *Norms and Values: Essays on the Work of Virginia Held* (pp. 3–26).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empik, J., & Becker, S. (2014). *Young adult carers at college and university*. Carers Trust.
- Shea, D., Davey, A., Femia, E. E., Zarit, S. H., Sundström, G., Berg, S., & Smyer, M. A. (2003). Exploring assistance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43*(5), 712–721. <https://doi.org/10.1093/geront/43.5.712>
- Smith, S. R., & Hamon, R. R. (2017). *Exploring family theories* (4th ed.). Oxford University.
- Smyth, C., Blaxland, M., & Cass, B. (2011). 'So that's how I found out I was a young carer and that I actually had been a carer most of my life'. Identifying and supporting hidden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145–160. <https://doi.org/10.1080/13676261.2010.506524>
- Sprung, S., & Laing, M. (2017). Young carer awareness,

- identification and referral. *British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22(8), 398–406.
<https://doi.org/10.12968/bjcn.2017.22.8.398>
- Stamatopoulos, V. (2015). One million and counting: The hidden army of young carers in Canada.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809–822.
<https://doi.org/10.1080/13676261.2014.992329>
- Stamatopoulos, V. (2018). The young carer penalty: Exploring the costs of caregiving among a sample of Canadian youth. *Child & Youth Services*, 39(2–3), 180–205.
<https://doi.org/10.1080/0145935X.2018.1491303>
- Struckmeyer, K. (2015). *Emerging adulthood caregivers: Examining the unique experiences in this understudied pop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003070672>
- Tronto, J. C.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 van der Werf, H. M., Luttik, M. L. A., de Boer, A., Roodbol, P. F., & Paans, W. (2022). Growing up with a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The impact on and support needs of young adult carer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 1–16.
<https://doi.org/10.3390/ijerph19020855>

Abstract

Korean Young Adult Carers' Lived Experiences of Caregiving for Parents and Grandparents from Developmental and Family Systems Perspectives

Kim, Suh Yo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 adult carers (YACs) who provide care for their family members have received increasing social and academic attention. However, related research and public policy have mainly focused on primary YACs in single-parent families or grandparent-headed families. A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xperiences of YACs in Korea, but very few or no studies have explored the link between caregiving and emerging adulthood or considered family dynamics. Unlike caregiving in middle or older adulthood, caring for parents and grandparents in young adulthood is considered a non-normative, off-time event that may bring many changes and difficulties.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dynamics of the YAC's whole family given that YACs become caregivers in a family context and it is where they face challenges and interact on a daily basi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YACs who are caregivers for parents or grandparents from developmental and family systems perspectiv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unmarried women and men aged 19–34 who had routinely provided care for a parent or grandparent due to illness or disability for more than six months within the past year. Using reflexive thematic analysis, five central themes emerged from the data.

The participants inevitably assumed caregiving responsibilities due to family coercion or family structures. YACs were chosen to become caregivers because they were not actively involved in economic activities. YACs were also "hidden" primary caregivers. Although they did not perceive that they were the primary caregiver when other family members such as their parents were also caregivers, the participants performed a similar level of care compared to the acknowledged caregiver in the family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n addition, unlike the expectation that the parent generation would take care of the grandparents in multi-generational families, some parents handed over the caregiving responsibility to the YACs, or they co-cared for the ill or disabled person, or the care recipient only received care from the YACs.

The YACs' family dynamics was the key context for YACs' caregiving experi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YACs and care recipients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family member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overall care experiences. For many YACs, caring for parents was "unnatural," which led them to provide care only because they were tied to the family. However, many YACs who cared for their grandparents perceived that caregiving was a "natural" experience that allowed them to repay the love and care that the grandparents had provided in the past. In

addition, relationships with other family members were perceived as either support or a stressor. Some YACs were able to endure the burden of caregiving thanks to family support, but some wanted to escape from caregiving responsibilities because of the tensions and conflict in the family.

The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y had lost their emerging adulthood due to their caregiving burden. At the same time, they thought that emerging adulthood was a better time to provide care because they had nothing to lose given the developmental stage. Their responsibilities interfered with the YACs' lives or they had to change plans for college graduation, employment, dating, and marriage, which are major life event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s a result, they could not properly experience emerging adulthood, a period of possibilities, self-focus, and identity exploration. However, many YACs also regarded family caregiving as a steppingstone for the future and an opportunity for the family to become clos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experiences of family caregiving in emerging and young adulthood with a focus on family dynamics,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YACs' experiences were deeply intertwined with thei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 dynamics of the family as a whole. In addition, YACs' experiences during emerging and young adulthood were not considered a hindrance to them, but rather, the experience helped them develop. These results suggest that family caregiving during this period can be a mixed blessing with both positive and negative attributes.

Keywords: family caregiving, young carer, transition to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life course perspectives, family system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Student Number: 2021-28743